

대학도서관 지역정보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University Library Regional Network

이지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문성빈,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Lee Ji Won, Moon Sung Been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Yonsei Univ.

정보의 급격한 증가와 내용의 전문화 경향으로 인해 개별 도서관이 이용자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소장하는 것은 오늘날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도서관정보망 구축을 통한 자원의 공동활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대학도서관 정보망 사례 및 국내 도서관정보망의 현황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대학도서관 지역정보망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도서관문화가 발달한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서관간의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그 필요성도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호협력의 결과인 자원의 공동이용은 최근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서관 상호협동의 필요성과 이점이 1960년대 말부터 문헌을 통해 계속 제기되어, 몇몇 도서관상호협력기구가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 활동이나 성과가 나타난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미국이나 선진 외국의 경우 도서관 상호협동에 있어 대학도서관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중추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자관의 소장서 이용만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대학도서관의 정보 자료가 선진 외국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내상황을 고려한다면 대학도서관간의 정보망을 구성하는

것은 이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의 대학도서관 정보망 사례 및 국내 도서관정보망의 현황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대학도서관 지역정보망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도서관정보망의 발전과 동향

2.1 도서관전산화와 정보통신기술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은 도서관의 역할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상호협력에서도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많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서구에서는 온라인 시스템의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네트워크의 개념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으며, 이미 구축된 도서관 상호협력과 자원의 공동이용이 보다 활성화되었다.

컴퓨터의 도입과 기계가독형목록의 등장은 도서관정보망을 통한 공동편목을 급속도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도서관정보망은 LC MARC가 제작되기 시작한 1960년대 말

기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OCLC, RLIN, WLN과 같은 전국 규모의 서지정보망을 구성하게 되었다. 많은 도서관들은 이러한 서지정보망을 이용하여 편목에 소요되는 경비나 인력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규모 서지정보망들은 모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온라인 종합목록을 기반으로 상호대차 하부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다.

상호대차와 문헌제공서비스 또한 기술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부분이다. 상호대차와 문헌제공서비스를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의 소장처 확인, 이용 신청, 전달 등의 세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자료의 소장처 확인에는 온라인열람목록(OPAC : Online Public Access Catalog)의 발달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마이크로컴퓨터, 모뎀, 통신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가진 이용자는 원거리에서도 목록에 직접 접근해 자료를 탐색할 수 있게 되었다.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때는 팩시밀리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문의 복사물을 전달하는데 있어서는 팩시밀리의 이용이 보편화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종래의 문헌제공서비스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으로 정보를 전자적으로 복제하고 팩스모뎀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전자전송에 대한 연구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정보소장매체도 많이 개발되어 도서관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특히 CD-ROM은 도서관간의 자원공유와 상호협력의 수단으로서도 그 가치가 크다. 자원공유를 위해 가장 직접적으로 CD-ROM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CD-ROM 종합목록의 이용이다. CD-ROM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은 이용자가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게 함으로써 상호대차나 문헌제공 요청을 증가시켰고, ADONIS와 같이 학술기사의 원문을 소장한 CD-ROM 전문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은 이용자에게 필요한 기사의 원문을 양질의 상태로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의 경우 장서평가 도구로서의 CD-ROM도 개발되어 도서관간의 협동장서개발에 이용되고 있다.

도서관전산화의 당위성이 커감에 따라 소

규모 도서관들은 시스템의 공동개발을 추진하였고, 따라서 컴퓨터의 도입은 도서관들의 협력분야를 전산화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공동개발과 같은 분야까지 확대시킨 요인이 되었다.

2.2 학술정보망의 이용

현재 전세계적으로 많은 전산망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학술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세계적 규모의 전산망들은 도서관정보망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학술정보망 중 최근 국내에서도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정보망이 바로 인터넷이다.

오늘날 인터넷은 정보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도서관정보망의 활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전자우편기능은 인터넷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가장 널리 이용되는 기능으로서, 도서관은 이 기능을 이용해 협력도서관에 상호대차신청이나 원문복사신청을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상호협력 분야에서 이를 담당하는 사서들간에 업무와 관련된 의사교환을 할 수 있다.

원격로그인기능은 원격지의 컴퓨터시스템을 마치 자신의 컴퓨터처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상호대차가 가능한 도서관의 OPAC을 탐색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화일전송기능은 문헌제공서비스에 있어 중요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과거 종이에 인쇄된 형태로 제공하던 정보를 스캐너를 이용해 이미지 형태의 화일로 저장한 뒤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인터넷의 각종 정보탐색도구 중에서 최근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WWW이다. 도서관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WWW를 이용하여 도서관정보망에 대한 소개를 하거나 이용가능한 서비스 등을 설명해 줌으로써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원격로그인을 통한 온라인열람목록 및 종합목록의 검색과 전자우편을 통한 자료이용 신청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다.

3 미국 대학도서관 정보망의 사례

도서관정보망의 발전과 구축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1995년 현재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협력체 및 정보망이 533개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그동안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온 미국 도서관정보망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먼저 1994/95년 미국 도서관 명감(American Library Directory 1994/95)의 '정보망, 컨소시아와 기타 협력 조직'부분을 참고하여 10개이하의 회원도서관으로 구성된 대학도서관 지역정보망 24개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각 정보망의 수행기능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기능이 기재되지 않은 2개를 제외한 22개의 미국 대학도서관 지역정보망에서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은 상호대차(18개, 81%)였고, 다음은 종합목록제공(12개, 55%), 상호이용(12개, 55%) 협동장서개발(11개, 50%), 문헌제공서비스(10개, 45%) 순서였다.

또한 각 도서관정보망의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려고 앞에서 살펴본 24개의 정보망에 대해 각 도서관정보망의 책임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넷의 WWW을 검색하여 해당 도서관정보망에 대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직접 살펴 보았다. 이같은 추가조사에 의해 수집된 총 9개의 도서관정보망에 대한 사례 조사 결과 거의 모든 정보망이 온라인종합목록 및 회원도서관의 온라인열람목록 제공을 위해 인터넷을 적극 이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WWW 상에 지역정보망의 기능과 이용방법, 타관에 대한 소개를 상세히 제공하고, 각 기관의 관련 WWW 사이트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4 국내 대학도서관 정보망의 현황

도서관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1960년대 후반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다행히 정보통신망 구축에 대한 국가 및 대학의 관심이 고조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

재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몇가지 도서관 정보망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대학도서관 학술정보전산망, 코넷, 그리고 포항공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술정보자료 공동 이용 협력체제가 이에 해당한다.

대학도서관 학술정보망은 이미 운영되어 온 국공립대학도서관장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정보망이고, 코넷은 도서관정보망 구축을 위해서 일선 사서들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한 코넷협의회에서 구축한 정보망이다. 두가지 모두 분담목록시스템 운영을 위한 종합목록 구축을 가장 우선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자는 1990년부터 추진하여 1996년까지 완성할 계획이었으나, 그 규모가 크고 5년여에 걸친 표준화기간 중 시스템의 개발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지역센터와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때문에 아직 그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전국적인 학술정보망의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큰만큼 많은 연구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반해 코넷협의회는 동일한 도서관시스템을 사용하는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일선 사서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현재 본격적인 분담목록 시스템 가동이 가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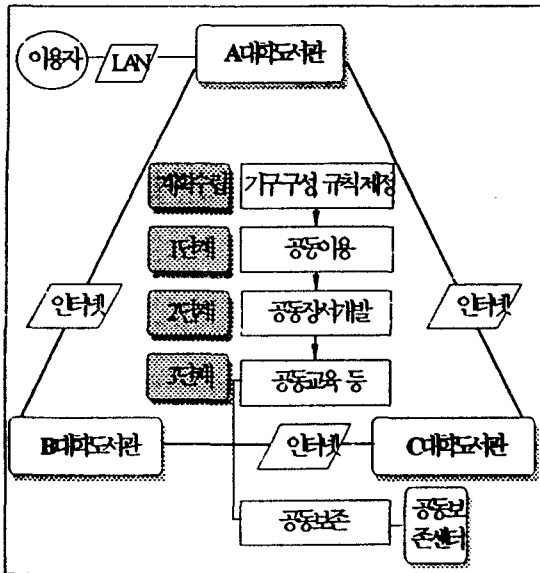
학술정보자료 공동이용 협력체제는 이용에 초점을 두고 운영된다는 점에서 다른 두가지 정보망과 다르다. 포항공대의 경우 대개 자료를 제공하는 입장임에도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용자에게 비용이 다소 부담이 될 수 있고, 대상자료가 거의 과학기술분야에 한정되어 있으며, 다른 분야의 협력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초기단계이기는 하나 국내에서도 이처럼 도서관정보망 구축을 통한 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각 대학도서관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5 대학도서관 지역정보망 모형 구축

국내 대학도서관 지역정보망 구축은 우선 OPAC 이용을 포함한 도서관전산화가 이루어져 있고, 교내 어디서나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근거리통신망이 구축되어 있는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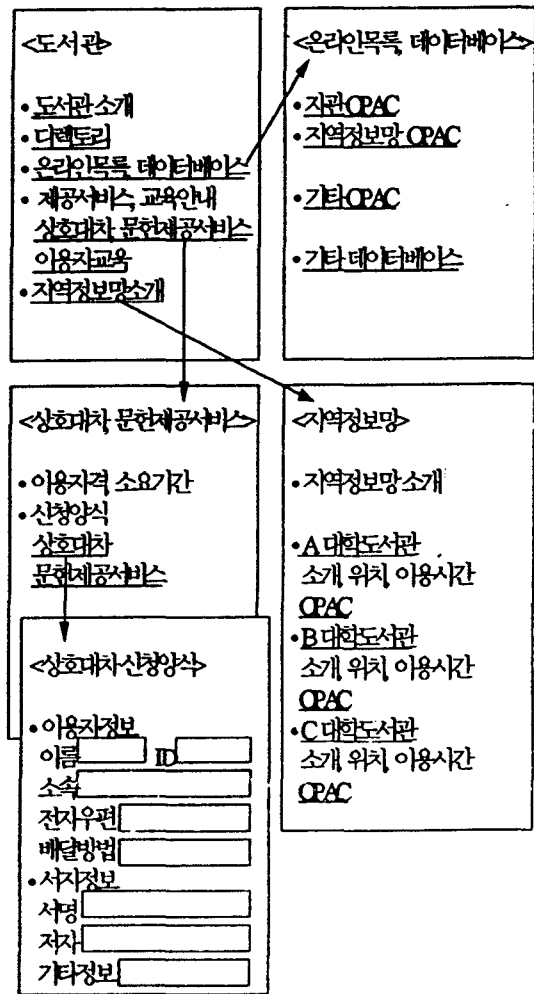
일단 도서관정보망 구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각 도서관 책임자와 실무진들은 이와 관련된 계획수립을 수행해야 한다. 도서관정보망을 통해 수행해야 할 1단계 기능은 단기간에 실현가능한 상호대차, 문헌제공서비스, 상호이용 등을 통한 공동이용이고, 2단계는 장기적 안목에서 수행하는 공동장서개발이며, 3단계는 공동교육이나 공동보존 등의 기타 기능이다. 대학도서관 지역정보망 구축 단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대학도서관 지역정보망 구축 단계

또한 도서관정보망 구축에 있어 국내 대학에서 접근가능한 인터넷 특히 WWW을 적극 이용해야 할 것이다. 각 대학마다 거의 WWW 서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도서관 관련부분을 추가하여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림 2>는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WWW화면의 예이다.

는 WWW화면의 예이다.



<그림 2> 대학도서관 WWW 화면의 예

그밖에 대학도서관 지역정보망 구축과 더불어 고려할 사항으로는 국가학술정보망과의 연계 및 보다 광범위한 정보제공 노력,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지속적인 평가작업, 대학당국 및 경영진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지적할 수 있다.